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 분석

202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은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 분석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은

인 준 서

김주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진로장벽을 분석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음악대학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음악전공생들의 진로 문제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글 설문지(Google Form)를 사용하여 음악대학 졸업생 1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하고 140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문의 문항은 총 45개로, 설문문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 요인,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으로 내적 요인인 음악에 대한 흥미(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조건 요인인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1.99)와 취업과 진로의 보장(1.73)이 전공선택에 있어 가장 낮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많은 음악전공생이 대학 재학 시에는 연주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지만, 졸업 후에는 연주 외의 음악 관련 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 분야로 진출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당시 58.6%, 졸업 당시 48.6%로 높았으나 현재 선택한 비율은 22.7%로 점점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이중 현재 연주 분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단 7.3%였다. 반면에 전공 외의 음악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당시 27.9%, 졸업 당시 37.9%이며, 현재 선택한 비율은 43.8%로 점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또한 입학 당시 0.7%, 졸업 당시 9.3% 희망하였으나, 현재 선택한 비율

은 10.1%로 상승하였다.

셋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미래불안(3.38)이며, 경제적 문제(3.29)와 정보 부족(3.15)이 다음으로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의 변화와 미래불안 및 경제적 문제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이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과 달리, 진로를 결정할 때는 직업조건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의사결정 초기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에 관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사회에 진출하면서 고려하게 되면서, 직업시장이 좁고 불안정한 연주 분야 대신 음악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전공생들이 겪게 되는 고용 불안 등의 다양한 취업 문제로 인해 진로설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미래불안과 경제적 문제 같은 진로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교육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진로와 진로발달	6
2. 전공선택과 진로의사결정	10
3. 음악전공생들의 진로	14
4. 진로장벽	19
5. 선행연구 고찰	2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8
1. 연구대상	28
2. 연구절차	28
3. 연구도구	29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4
IV. 연구결과	35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5

2.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36
3.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	37
4.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장벽	41
V. 연구분석	48
VI. 결론 및 제언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Ⅱ-1> 음악 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분야와 종류	14
<표Ⅱ-2> 2014~2018년 대학 전체 취업률과 음악대학의 취업률 현황	16
<표Ⅱ-3> 2018년 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졸업상황	17
<표Ⅱ-4> 2018년 음악대학 졸업자의 졸업상황	18
<표Ⅱ-5> 2018년 계열별 유지취업률 현황	19
<표Ⅲ-1> 연구절차	29
<표Ⅲ-2> 설문 문항의 구성	30
<표Ⅲ-3> 전공선택 요인 문항의 구성	31
<표Ⅲ-4> 진로 의사결정 과정 문항의 구성	33
<표Ⅲ-5> 진로장벽 문항의 구성	34
<표Ⅳ-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6
<표Ⅳ-2>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분석	37
<표Ⅳ-3>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대학교 입학 시와 졸업 시 희망진로	38
<표Ⅳ-4>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결정 유형	39
<표Ⅳ-5>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결정 분야	40
<표Ⅳ-6>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장벽	42
<표Ⅳ-7>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43
<표Ⅳ-8>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분야에 따른 진로장벽	44
<표Ⅳ-9>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45
<표Ⅳ-10>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장벽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취업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8년 기준 69.7%로,¹⁾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인 43.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세계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 1.3% 하락하여 9.1%로 개선되었으나,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9.5%로 2.4% 상승하면서 회원국 가운데 청년고용률 순위가 11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³⁾ 즉, 한국에서는 높은 교육열에 비해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자리 박람회와 각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 그리고 취업 관련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취업 정보가 제공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이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여 실기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대학에서도 실기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전문가로서의 기량을 습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악전공생들은 졸업 후에 진로의 방향

1)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치중등 교육통계편.
<https://kess.vedi.re.kr/>. (2019. 10월 접속)

2) 김수혜(2018).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취업 여부와 시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p. 303.

3) 김현경(2019). OECD 청년실업률 떨어질 때 韓2.4%P 올랐다.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090259&t=NN> (2020. 1월 접속)

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3%로 전체 전공에서 두 번째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프리랜서 종사자의 비율이 예·체능계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⁴⁾ 이러한 낮은 취업률로 인하여 음악대학은 최근 여러 대학교 내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어 인원 감축, 학과 통폐합 및 단과대학 폐지 위기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⁵⁾

이와 같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진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이보현⁶⁾에 따르면 전공자들의 진로는 개인 교습과 학원경영, 대학원 진학으로 국한되어 있어 향후 진로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예체능계 취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김계원 외⁷⁾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음악전공생들은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지만, 능력보다는 학력 위주의 채용(26%), 전공과 연계된 일자리 부족(20%), 경험 및 현장성 부족(15%), 채용정보 및 준비 부족(14%)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장벽을 느낀다는 것이 나타났다.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를 분석한 정환호와 최진호⁸⁾의 연구에서는 음악전공생들이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합도가 낮다고 인식하여, 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음악전공생들은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5) 김계원·양은주·최정수(2016). “예체능계 대학 인력 공급 현황 및 인식분석”. 예술교육연구, 14(1). p. 2.

6) 이보현(2014).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계원, 양은주, 최정수(2016). 앞의 책. p. 13.

8) 정환호·최진호(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p. 15.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음악계의 진로가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인 장벽을 느끼고, 음악대학의 교과과정 또한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음악전공생들이 진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문제나 장벽을 겪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정작 이들이 졸업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데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진로장벽을 분석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음악대학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음악전공생들의 진로 문제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졸업자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대학 입학 당시와 졸업할 당시 희망한 진로는 무엇인가?
-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실제로 결정한 진로는 무엇인가?
- 셋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겪은 진로장벽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음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스노우볼 표집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음악대학 졸업생들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

진로란 개인 장래·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생애, 직업발달, 과정, 내용을 모두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⁹⁾

나. 진로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이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학과선택, 직장선택, 직업의

9) 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p.15.

변화 시점 등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¹⁰⁾

다. 진로장벽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로 진학, 취업, 직장 생활, 승진, 이직 등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나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지각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을 통칭한다.¹¹⁾

10) 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RD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862&cid=51072&categoryId=51072>. (2020. 4월 접속)

11)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2판)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 서울: 학지사. p. 189.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와 진로발달

가. 진로의 정의

진로(career)의 어원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의 ‘carro’에서 유래되었다.¹²⁾ 진로는 좁은 의미에서 직업과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 일생에 추구해 온 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¹³⁾ 현대적 의미의 진로의 개념은 1950년대에 접어들어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학자들은 진로의 개념을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일회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련의 결정들이 전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¹⁴⁾ 따라서 진로의 사전적 의미인 ‘앞으로 나아갈 길’¹⁵⁾은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이준과 황은희는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동안 참여하는 일과 생애 활동 전체의 연속 과정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이라고 하였다.¹⁶⁾ 김계현은 진로를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진미석은 진로가 “일을 통해 축적한 직업적 경력의 과거적인 뉘앙스와 앞으로 생애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행로’의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혼합된 용어”라고 하였다.¹⁷⁾ 이현림은 진로를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

12) 이현림(2007). 진로상담. 파주: 양서원. p. 15.

13) 김이준·황은희(2016). 대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 서울: 가담플러스. p. 16.

14)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 20.

15)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www.korean.go.kr. (2020. 1월 접속)

16) 김이준·황은희(2016). 앞의 책. p. 17.

17)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 18.

이 자신의 일생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일”로 보았다.¹⁸⁾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진로란 한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경험하는 일생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진로발달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¹⁹⁾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발달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진로가 한 개인의 일생동안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가에 주안점을 두었다.²⁰⁾ 대표적인 이론으로 긴즈버그와 수퍼의 진로발달이론이 있다.

먼저 긴즈버그(Ginzberg, E)의 진로발달이론은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선택의 과정을 처음으로 다룬 이론으로, 직업선택은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일련의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¹⁾ 직업선택과정은 “바람(wishes)과 가능성(possibilities) 간의 타협”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타협 때문에 직업선택 과정은 비가역적이다.²²⁾ 긴즈버그의 직업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상적 직업선택 단계(fantasy period, 6~10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의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독단적으로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의 일을 놀이를 통해 표출하려고 한다.²³⁾

18) 이현립(2007). 앞의 책. p. 15.

19) 이희영(2003). 앞의 책. p. 18.

20) 이현립(2007). 앞의 책. p. 109.

21) 김충기·황인호·장성화·김순자·윤향숙(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학지사. p. 253.

22)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광주: 정민사. pp. 56~57.

23)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앞의 책. p. 80.

둘째, “시험적 직업선택 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 등이 고려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인식의 고려는 부족한 단계이므로 시험적 성격을 지닌다.²⁴⁾

셋째,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realistic period, 18~22세)”는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 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고 타협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직업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불안정한 정서, 개인적인 문제, 재정적 여유로움 등으로 늦어지기도 한다.²⁵⁾

긴즈버그는 몇 차례의 수정을 통해 직업선택을 개인의 진로 준비 및 목표와 현실 간의 최적화를 찾으려 하는 생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론이 제시한 직업선택의 발달단계는 개인의 직업적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²⁶⁾

수퍼(Super, D. E.)는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긴즈버그가 성인 초기까지로 진로발달을 한정시킨 것에 반해 그는 진로발달을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직업선택을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적응과정, 즉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으로 보았다. 수퍼의 이론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자아개념으로, 진로발달을 자아개념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수퍼의 진로발달 단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growth stage, 0~14세)”에는 가정과 학교의 주요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여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사회에 참여하고 환경을 탐색하면서 흥미와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이 시기는 3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는데,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수행이

24) 김봉환·정철영·김병식(2006). 앞의 책. p. 80.

25) 김봉환·정철영·김병식(2006). 앞의 책. p. 81.

26) 이희영(2003). 앞의 책. p. 36~37.

중요시되는 “환상기(4~10세)”,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되는 “흥미기(11~12세)”,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게 되는 “능력기(13~14)”로 이루어진다.²⁷⁾

둘째,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는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을 탐색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3개의 하위 단계로 구분된다. “잠정기(15~17세)”에서는 진로선택에 개인의 능력, 흥미,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상상이나 경험을 통해 시행해보며, “전환기(18~21세)”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개인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소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행기(22~24세)”에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²⁸⁾

셋째,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4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기가 선택한 일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재탐색을 하는 변동이 있는 “시행기(25~30세)”와, 진로 유형이 분명해지고 안정된 위치를 가지려 노력하는 “안정기(31~44세)”로 구분된다.²⁹⁾

넷째, “유지기(maintenance stage, 45~65세)”는 정해진 직업에 정착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자신의 기술을 갱신하거나 지속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해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³⁰⁾

다섯째,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는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고 다른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개인은 은퇴 준비에 관심을 가지며, 그에 따른 은퇴 생활과 관련된 진로발달 과업이 존재하게 된다.³¹⁾

27)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 63.

28)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 63.

29)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 64.

30) 김봉환(2019). 앞의 책. p. 65~66.

31) 김봉환(2019). 앞의 책. p. 66

수퍼의 이론은 일과 관련된 경험을 ‘직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발달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직업적 성숙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많은 양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³²⁾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 졸업자로 수퍼의 진로발달 단계 중 탐색기와 확립기의 시행기에 해당한다. 즉, 이 시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단계별 과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아넷(Arnett, J. J.)은 18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성인진입기”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고등교육으로 교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 등 성인기의 과업 수행이 연기되면서 이 시기에 정체성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에릭슨(Erikson, E. H.) 또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유예가 나타나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정체성 탐색이 지연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³³⁾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며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2. 전공선택과 진로의사결정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자 발달과업이다.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진로 가운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32) 김봉환(2019). 앞의 책, p. 67.

33) 손보영(2014). 성인진입기의 다중역할계획태도 중단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8~9.

Sharf, R. S.(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 김진숙·김정미·서영숙 역. 서울: 박학사. p. 300.

다.³⁴⁾ 최선의 진로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진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상의 의미는 돈뿐만 아니라 지위나 명예, 일의 보람, 육구 충족 등 개인이 지닌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을 포괄한다.³⁵⁾ 한 개인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고 졸업 후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 중 타이드만과 오하라(Tiedman, D. V. & O'Hara, R.)의 의사결정이론은 직업발달을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나 직업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 직업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단계를 크게 “예상기”와 “실천기”로 나누었는데, “예상기”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의 하위 단계로 나뉘며, “실천기”는 적응, 개혁, 통합의 하위단계로 나뉜다. “예상기”의 과정은 개인이 지향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과 그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실용성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진로선택을 할 때마다 거치게 된다.³⁶⁾

한편 초기의 진로이론에서는 주로 진로선택에 있어 흥미나 적성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에 집중했지만, 점차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진로이론인 성격이론은 홀랜드(Holland, J. L.)에 의해 제시되었다. 직업선택과 발달에 관하여 홀랜드의 이론은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곧 개인의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홀랜드는 대부분의

34)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2판)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서울: 학지사. p. 149.

35) 김봉환(2019). 앞의 책. p. 310.

36)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76~79.

사람을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유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성격과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⁷⁾ 그는 초기에는 사람이 여섯 가지 유형 중 단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특징지었으나, 이후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가 우세하며 하위 유형 또는 성격 패턴이 있다고 수정했다.³⁸⁾ 홀랜드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예술적 유형이 강한 집단이며, 이들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는 음악에 대한 흥미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크럼볼츠(Krumboltz, J. D)는 진로결정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을 제시하며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유전적 재능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 요인은 개인의 교육적 · 직업적 선호나 기술을 제한하는 특질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음악가, 예술가의 능력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된 것이며,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이들의 진로선택을 제한하기도 한다. 둘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이 기술개발, 활동, 진로에 대한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인이다. 환경에는 취업 가능한 직종, 사회정책, 가정, 교육제도, 지역사회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학습경험으로, 개인이 학습한 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 ·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학습경험에 의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학습경험은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적 학습경험과, 과거의 관찰, 출판물, TV 등을 통해 겪은 감정이 연결되어 겪은 간접적 학습경험인 연상적

37)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앞의 책. pp. 57~59.

38) 김봉환·김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헌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2018). 진로상담(2판). 서울:학지사. p. 54

학습경험으로 나뉜다. 넷째, 과제접근 기술 요인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되는 기술로, 앞의 세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과제접근 기술에는 문제해결능력, 정보수집, 업무습관, 인지적 과정, 정서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³⁹⁾ 아울러 크럼볼츠는 진로에서 ‘우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개인의 진로에는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운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이것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다음으로 반두라(Bandura, A)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발달한 렌트 등(Lent, R. W., Brown, S. D & Hackett, G)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맥락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으며, 다양한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고려하여 이론을 정립하였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변인으로는 성, 인종, 신체, 유전적 재능 등이 있으며, 이는 독립적으로 진로에 대한 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변인을 크게 근접맥락과 배경맥락으로 나누었는데, 근접맥락요인은 비교적 진로선택에 직접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근접맥락요인에는 특정 진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이 제공하는 재정적 또는 정서적 지지, 당시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진로장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경맥락요인은 더욱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소속된 가족, 사회, 문화에서 사회적 기능을 익히고 역할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기초하여 직업적 흥미를 형성한다고 하였다.⁴¹⁾

39)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앞의 책. pp. 65~66.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p. 97~98.

김봉환·김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2018). 앞의 책. pp.96~97.

40)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앞의 책. p. 97.

41) 김봉환(2019). 앞의 책. p.78.

이처럼 개인의 전공선택과 진로결정에 흥미와 적성, 신체, 학습경험, 가정,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환경, 우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각 요인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세계관과 직업관, 자아개념 등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⁴²⁾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음악전공자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의사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진로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음악전공생들의 진로

가. 음악과 관련된 진로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대학 전공별 가이드 음악학과편」에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들이 소개되어 있다. 세부적인 직업의 분야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Ⅱ-1> 음악 전공과 관련된 직업의 분야와 종류⁴³⁾

분야	직업의 종류
교육	중등 음악교사, 발성교정교사, 음치교정교사, 가정방문 음악교사, 방과후 음악교사, 영유아 음악교사, 영유아 놀이교실 음악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국악 지도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우쿠렐레 교사, 사회 예술 음악강사, 아마추어 성악지도자, 입시음악 지도자, 오페라감상 교육자, 클래식 성악교실 지도자, 클래식이론 지도자, 피아노 실기 지도자, 클래식이론 지도자, 합창단 발성 지도자, 레크레이션 강사, 동요지도자, 가요교실 강사, 음악학원 강사, 보컬 트레이너, 음악전공 교원, 오페라 음악코치, 실버합창단 지도자, 기업 내 직원합창단 코치

42) 이현림(2007). 앞의 책. p. 51.

공연 활동	하우스매니저(공연장 관리자), 성우, 뮤지컬배우, 가수, 성악가, 합창단원, 오페라단 단원, 해외 오페라 가수, 교향악단 단원, 뮤지컬 오케스트라단원,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단원, 실내악 합주단, 성악반주자, 합창반주자, 무용반주자, 교향악단소속 피아니스트, 종교단체 소속 피아니스트, 오케스트라지휘자, 합창지휘자, 이벤트 전문 가수, 이벤트 전문연주자, 오페라 전문 조명기사, 건축음향관리자, 무대음향기사, 공연분장사, 연극배우, 종교음악가
창작활동	오페라연출가, 음반기획자, 오페라단 캐스팅 디렉터, 클래식 작곡가, 가요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연극음악 연출가, 무대음악 연출가, 방송음악 연출가, 음악분수 연출자, 오페라 무대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무대음향 감독, 드라마음악 감독, 음악방송작가
조사·연구	음악 전문기자, 오페라평론가, 음악이론연구원, 클래식 음악 해설사, 오페라 스코어 번역가, 음악 국제행사 전문 통역사, 음악 서적 번역가, 음성·음색연구원, 음악교육연구원, 언어치료사, 음악 심리치료사
광고·홍보·마케팅	매장 음악 선곡 전문가(음악 컨설턴트), 문화사업기획자, 악기제작 및 판매원, 연주 의상 대여 및 판매원, 공연 전문 인쇄물 디자이너, 문화 국제교류 담당자
문화예술경영	음악교재 출판기획 사무원, 문화행사 음악기획자, 녹음시설업체운영자, 만화음악 제작자, 영화음악 제작자, 특수효과음향제작자, 공연 전문 인쇄물 제작자, 음악방송 PD, 모바일음원 제작자, 행사음악 기획자
서비스	리포터, 아나운서, 합창단 담당자(사무직원), 악기수리원, 조율사, 음악저작권관리자

<표Ⅱ-1>을 보면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희선⁴⁴⁾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대학 학생 중 연주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음악교사, 음악 관련 사무직이나 엔지니어링, 레슨교사가 그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직업 인식이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많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43) 박지현·조영일·신희망·장선화·안소라(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음악학과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p.24~31.

44)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p.112.

이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예술시장은 규모 대비 수입이 낮고 일자리가 미비하여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8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티켓 판매 수입을 장르별로 조사한 결과 뮤지컬이 64.1%, 연극 16.1%인 반면 서양음악은 4.9%로 낮은 수치를 보여, 서양음악 시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단체를 장르별로 연극, 무용, 양악(서양음악), 국악, 복합으로 나누어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양음악 공연단체는 전체 단원 중 비정규직이 82.6%로 전체 장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고용 불안도 타 장르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⁴⁵⁾

나. 음악전공생들의 졸업 후 현황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해 발행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는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 현황 등의 졸업 후 진로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제외한 전체 대학의 평균 취업률과 음악대학의 평균 취업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2> 2014~2018년 대학 전체 취업률과 음악대학의 취업률 현황⁴⁶⁾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 전체 평균 취업률 (%)	64.5	64.4	64.3	62.6	64.2
음악대학 평균 취업률 (%)	43.4	44.6	48.4	49.2	51.3

45)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www.mcst.go.kr. (2020년 3월 접속)

4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표Ⅱ-2>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음악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전체의 취업률보다 평균 16.6% 떨어진다. 비록 음악대학의 취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5년 동안 전체 전공 중에서 중등교육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졸업 후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18년 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졸업상황과 음악대학의 졸업상황을 정리해보면 <표Ⅱ-3>, <표Ⅱ-4>와 같다.

<표Ⅱ-3> 2018년 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졸업상황⁴⁷⁾

구분	졸업자	취업률 (%)	합계	졸업상황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 창작 활동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진학자
				교외	교내						
인문	39,655	56.8	18,949	15,420	802	553	1	12	382	1,779	3,083
사회	91,213	62.4	52,228	4,6877	1,367	532	28	1	959	2,464	2,297
교육	15,980	48.2	7,094	5,812	297	25	-	54	96	810	553
공학	79,280	69.4	48,788	45,254	1,228	379	8	2	495	1,422	7,227
자연	38,118	60.7	18,297	16,352	852	90	59	9	341	1,224	5,997
의약	23,904	83.9	19,298	18,820	162	25	4	1	68	218	519
예체능	35,538	62.2	19,666	13,258	627	173	4	964	951	3,689	2,06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47)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표Ⅱ-4> 2018년 음악대학 졸업자의 졸업상황⁴⁸⁾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취업률 (%)	합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 창작 활동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진학자
				교외	교내						
음악	5,834	51.3	2,480	1,052	162	-	-	227	200	839	766

<표Ⅱ-3>을 보면 2018년 졸업자 중 예체능 계열 전체의 평균 취업률은 62.2%로 대학 전체 취업률 64.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표Ⅱ-4>를 보면 음악 전공의 경우 취업률이 51.3%으로 예체능 계열의 평균 취업률보다 낮는데, 이는 예체능 계열에 속하는 전공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⁴⁹⁾ 또한 전체 계열과 비교했을 때 예체능 계열에서 프리랜서는 3,689명,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 964명, 1인 창(사)업자는 951명으로 다른 계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예체능 계열 졸업자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음악대학 졸업자의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 중 음악 전공의 진학률은 13.1%로 타 전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해외 교육기관으로의 진학한 졸업자는 2018년 기준 음악전공에서 49명으로, 전체 전공에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

4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chedi.re.kr/>. (2020. 2월 접속)

49) 예체능 계열의 다른 전공들의 취업률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63.9%, 응용예술 64.1%, 무용·체육 68.4%, 미술·조형 55.8%, 연극·영화 62.1%.

<표Ⅱ-5> 2018년 계열별 유지취업률 현황⁵⁰⁾

구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차 유지취업률 (%)	2차 유지취업률 (%)	3차 유지취업률 (%)	4차 유지취업률 (%)
인문	16,222	88	83.7	77.3	75.4
사회	48,244	91.1	86.8	81.8	80.2
교육	6,109	84.8	82.4	78.8	77.9
공학	46,482	93.1	89.7	86.0	84.7
자연	17,204	88.8	84.2	78.4	76.9
의약	18,982	92.6	88.5	84.0	82.3
예체능	13,885	84.8	78.2	70.0	67.7
총계	167,128	90.6	86.4	81.3	79.8

유지취업률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 기간(3, 6, 9, 11개월) 경과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표Ⅱ-5>를 살펴보면 예체능 계열의 유지취업률이 전체 계열 중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전공의 유지취업률은 1차 77.8%, 4차 60.2%로 예체능 계열의 평균 유지취업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악대학 졸업자들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도 직업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진로장벽

가. 진로장벽의 개념

앞서 살펴본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 등 중요타인이

5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앞의 책. p. 140~147.

자녀의 진로결정을 지지해주면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결정을 반대하면 진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⁵¹⁾ 스완슨과 오이트케(Swason, J. L. & Woitke, M. B.)는 진로장벽을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정의하였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진로장벽 연구들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⁵²⁾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크라이츠(Crites, J. O.)가 진로장벽을 자기개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내적갈등’과 직장에서의 차별과 같은 ‘외적 좌절’의 이분법적 구분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⁵³⁾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은 크라이츠에 의해 최초로 “방해조건”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직장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지각된 장벽”(Fitzgerald, 1995), “진로와 관련된 장벽”(Luzzo, 1997) 등으로 불렸다.⁵⁴⁾

초기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되어 실시되었으나,⁵⁵⁾ 진로장벽을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트프레드슨(Gottfredson, L. S.)에 의해 연구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진로장벽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는 진로장벽을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개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와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목표와 타협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진로장벽을 경험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이에 반응하는지가 중요시되었다.⁵⁶⁾ 이에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렌트 등(Lent, R. W., Brown, S. D & Hackett, G)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을 맥락적

51) 송원영·김지영(2013).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pp. 134~135.

52) 장이슬·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p. 368.

53) 송원영·김지영(2013). 위의 책. p. 135.

54)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55) 김은영(2000).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5.

56) 김은영(2000). 위의 책. p. 5.

요인으로 설명하여, 진로장벽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들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근접맥락요인인 부모의 정서적·재정적 지지, 당시의 경제 상황 등이 개인 내적 변인들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가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⁵⁷⁾ 이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기보다 개인의 기대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선택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진로장벽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⁵⁸⁾

나. 진로장벽의 분류

진로장벽은 이분법적 분류, 삼분법적 분류, 다원적 분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분법적 분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로장벽을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내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개념, 가치관, 성취동기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소, 직장에서의 차별, 근무조건 등이 해당된다. 여성의 진로장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베츠(Betz, N. E.)는 여성의 내적 진로장벽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 및 자아효능감, 진로갈등을, 외적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성 역할 및 직업적 고정관념, 교육에서의 성 편견, 교육장벽, 인종차별을 제시하였다.⁵⁹⁾

이분법적 분류는 단순하고 분명한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스완손과 토커(Swanson, J. L. & Tokar, D. M.)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진로장벽을 태

57) 공윤정(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p. 864.
김봉환·김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2018). 앞의 책. p. 109.

58)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p. 34.

59)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앞의 책. p. 186.

도 장벽, 사회적·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의 삼분법적 분류를 사용하였다. 태도 장벽은 개인 내적인 자아개념, 직업에 대한 태도, 적성 등이 해당되며, 사회적·대인적 장벽은 진로와 가사 활동을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지각되는 것으로 원가족, 미래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상호작용적 장벽은 성, 나이, 인종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장벽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뜻한다.⁶⁰⁾

마지막으로 다원적 분류는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을 위주로 조사하여 분류하는 연구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이분법, 삼분법적 분류가 진로장벽을 틀에 맞추어 해석한 것과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진로장벽의 요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⁶¹⁾ 스완손과 토커는 다원적 분류체계에 따라 대학생 진로장벽검사도구(CBI)를 개발하여 13개의 다층적 척도로 구성하였다.⁶²⁾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다원적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진로장벽을 조사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⁶³⁾ 이때 진로장벽이 크게 발생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효능감이나 판단력이 낮아져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동떨어진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⁶⁴⁾ 따라서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게 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정도에 따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60) 황매향·김연진·이승구·진방연(2011). 앞의 책. p. 186.

61) 황매향·김연진·이승구·진방연(2011). 앞의 책. pp. 186~187.

62) 송원영·김지영(2013). 앞의 책. p. 136.

63) 신선임·김계현(2012). “진로결정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예언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담학연구, 13(4). p. 1664.

64) 천성문·김미옥·함경애·박명숙·문애경(2017). 앞의 책. p.108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장명진⁶⁵⁾은 서울의 4년제 대학 3곳의 성악, 실용음악 보컬, 국악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독립성이 가장 높고 목적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연구자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에 내적 가치나 진로를 통한 자아실현보다는 현실적 가치, 즉 경제적 측면을 더 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음악전공생들은 8가지 진로장벽의 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명진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성숙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진로장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들이 진로장벽을 바르게 인식하여 원활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슬⁶⁶⁾은 서울 소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성별, 전공, 학년에 따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대학 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장 큰 진로장벽 요인은 우유부단함이며,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과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

65) 장명진(2019).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 이슬(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이와 더불어 진로태도성숙의 요인에서는 결정성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음악 전공생들의 진로장벽 혹은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가 드물어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관현악을 전공한 졸업자들의 취업과 대학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오원경⁶⁷⁾은 구직이나 직무환경에 실제로 참여 중인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생 87명을 대상으로 취업, 전공교육과정, 진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관현악과 졸업자들은 일로 알게 된 사람이나 대학 동기, 선후배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비율이 64.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개채용 등의 새로운 경로보다는 지인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폐쇄적인 직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경험이 적은 전공생은 구직이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취업 전망이 어둡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악기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전공으로의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공교육과정의 개선 및 대학과 문화예술단체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취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음악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홍지연⁶⁸⁾은 서울,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별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대학생들은 내부·경험적 요인과 재능적 요인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동기를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환경적, 개별적 요인에서만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67) 오원경(2018).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자들의 취업 및 대학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홍지연(2018).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7(2).

공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한 기악과 집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나 음악을 접하기 쉬운 가정환경, 경제적 여유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서는 인식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진로의 방향성 및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은 높으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학생들의 진로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음악대학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여 이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진로장벽을 분석한 정환호⁶⁹⁾는 6개 음악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동기,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와 현실적으로 선택하게 될 진로 간 차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로장벽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음악을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음악적 흥미와 재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과 취업을 전공선택 시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는 진학과 연주단체 취업 등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비율이 약 73.7%로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실제로 선택하게 될 진로는 비연주 분야인 음악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환호는 학생들이 음악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진로장벽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부족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진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관련 없는 일반분야 취업을 원하는 집단의 진로장벽 수준이

69) 정환호(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환호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선택했을 때 연주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진로장벽이 존재하기에 진로장벽의 다양성을 존중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환호는 음악전공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특수성이 적용된 검사 도구의 개발과, 실제 졸업자 등 연구대상 범위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음악대학 학생들의 직업세계인식을 조사한 주희선⁷⁰⁾은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서양음악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에 관한 인식과 직업탐색 활동을 선행연구에 나타난 타 전공 대학생들의 직업세계인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대생 중 49.5%가 연주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대생들의 희망진로가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73.1%의 학생들이 희망직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관심이 없으며 희망직업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21.5%으로 나타나 음대생들의 직업세계관이 매우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준비에 있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대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희망직업에 고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음대생들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연주자나 교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희망직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는 길거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타전공생들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대생들과 타전공생 모두 학교에서 취업준비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대생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진출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교육을 구축하여 음대생들의 진로인식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70)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예상하는 졸업 후 진로와 진로장벽을 묻는 것에서 그치지만, 진로선택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예상과 다른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진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낄 졸업생의 진로 현황과 진로장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전공자의 전공선택에서 진로선택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진로의 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들이 겪은 진로장벽을 조사함으로써 음악전공자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음악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공을 선택한 요인과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진로장벽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음악대학을 졸업한 143명으로,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⁷¹⁾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3개를 제외하고 140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140명 중 남자는 27명, 여자는 113명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준비, 설계, 수행, 분석 및 정리의 과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표Ⅲ-1>과 같다.

71) 성태제·시기자(2014). 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p. 103.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이 소개의 소개를 받아 원하는 표본 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표본을 확대해가는 방법”이다.

<표Ⅲ-1> 연구절차

연구절차	연구일정	연구내용
준비	2019. 9 ~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제 선정 •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문제 수립
설계	2019. 11 ~ 20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진행 절차 및 일정 수립 • 이론적 배경 수립
수행	2020. 1 ~ 202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도구(설문지) 제작 • 설문지 내용타당도 검증 및 사전 조사 • 설문지 수정 및 최종 완성 • 연구대상 섭외 • 설문지 배포 및 수집
분석 및 정리	2020. 4 ~ 20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방법에 의한 자료처리 및 분석, 결과 도출 • 연구결과 해석 및 정리, 작성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글 설문지(Google Form)양식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45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 요인, 희망진로,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작된 설문지는 음악교육 전공 교수 2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음악대학 졸업생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지 보완을 하여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Ⅲ-2>와 같으며, 최종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Ⅲ-2>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 수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1	5
	전공	1	
	전공선택 시기	1	
	입학연도	1	
	최종학력	1	
전공선택 요인	내적 요인	2	8
	사회문화적 요인	4	
	직업환경 요인	2	
진로 의사결정 과정	대학 입학 시 희망진로	1	8
	대학 졸업 시 희망진로	1	
	현재 주로 하는 일	1	
	직장근무의 경우 하는 일의 분야	3	
	취업준비의 경우 준비 중인 분야	1	
진로장벽	학업 지속 혹은 준비 중의 경우 학업의 분야	1	24
	자기명확성 부족	4	
	미래불안	4	
	정보 부족	3	
	경제적 문제	4	
	타인과의 관계 갈등	3	
	나이 문제	3	
	흥미 부족	3	
총계			45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연구의 대상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 구성된 문항으로, 성별, 전공, 전공선택 시기, 입학연도, 최종학력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전공선택 요인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은 정환호와 최진호의 검사도구인 MCCCCAI(Music Career Choice & Curriculum Applicability Inventory)에서 전공선택 요인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MCCCCAI에서는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요인으로 내적 요인 2개 문항(음악이 좋아서, 타고난 음악적 재능) 사회문화 요인 4개 문항(부모님의 영향, 교사의 영향, 존경하는 역할모델, 친구의 영향), 직업환경 관련 요인(취업과 진로의 보장, 수입의 보장, 전공의 직업적 특성(프리랜서), 전공의 발전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전공의 직업적 특성과 전공의 발전 가능성 요인을 제외하였고, 교사의 영향과 친구의 영향을 주변인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악적 경험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내적 요인 2개, 사회문화적 요인 4개, 직업조건 요인 2개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응답자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공선택 요인 문항의 자세한 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전공선택 요인 문항의 구성

구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 요인	음악에 대한 흥미	1	2
	음악에 대한 적성과 재능	2	
사회문화적 요인	음악가에 대한 꿈이나 롤모델	3	4
	음악적 경험	4	
	부모님의 권유나 가정의 영향	5	
	주변인(선생님, 친구, 선후배)의 권유	6	
직업조건 요인	취업과 진로의 보장	7	2
	높은 수입의 기대	8	
총계			8

다.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문항은 크게 대학 재학 시 희망한 진로와 현재 졸업 후 결정한 진로를 묻는 문항으로 나누었다. 희망진로에 관한 문항은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각각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졸업할 당시 희망하거나 우선으로 고려한 진로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의 선택지는 정환호의 진로선택 명목척도와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업 분야,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음악전공생들이 주로 고려하는 진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 명목척도로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음악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 유학), 전문연주자(연주단체 취업 또는 프리랜서 연주자) 또는 작곡가, 음악교육자(교사, 강사, 개인레슨)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 음악 관련 분야 취업(예술공연기획, 음악치료,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 등) 또는 관련 대학원 진학,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음(잘 모르겠다)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에 관한 문항은 음악전공생들이 졸업 후 결정한 진로를 묻는 문항으로,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진로 유형과 진로 분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진로 유형은 풀타임 직장 근무, 파트타임 직장 근무, 취업준비 중, 대학원 재학 중 혹은 해외 유학 중, 학업 준비 중, 없음으로 나누었다. 진로 분야는 연주(전공 실기) 분야(예: 연주단체, 프리랜서 등 전문연주자 혹은 작곡가), 음악 관련 분야(비연주 중심, 예: 음악교육, 음악치료, 예술공연기획,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 등), 음악 외 다른 분야로 구분하였다. 진로의사결정 과정 문항의 자세한 구성은 <표Ⅲ-4>와 같다.

<표Ⅲ-4> 진로 의사결정 과정 문항의 구성

구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수
대학 재학 시 희망진로	대학 입학 시 희망진로	1	2
	대학 졸업 시 희망진로	2	
진로결정	현재 주로 하는 일(진로 유형)	1	6
	직장근무하는 분야	2	
	음악과 관련된 분야 종사 시 직종	2-1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종사 시 직종	2-2	
	취업 준비하는 분야	3	
	학업 지속 혹은 준비하는 학업의 분야	4	

라.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은 스완손과 토커(Swanson, J. L. & Tokar, D. M.)의 진로장벽 척도(Career Barriers Inventory)'를 기반으로 김은영이 국내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 장애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를 참고하여 음악대학 졸업생에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KCBI에서는 진로장벽을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열등감을 제외하였으며, 대인관계 어려움과 중요타인과의 갈등을 통합하여 타인과의 관계 갈등으로 명칭하였다. 또한 전체 설문지의 문항 중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각 하위요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문항 수를 조절하였다. 하위요인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단어로 대체하여 각 하위요인의 성격을 잘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공선택 요인과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장벽 요인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87$ 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문항의 자세한 구성은 <표Ⅲ-5>와 같다.

<표Ⅲ-5> 진로장벽 문항의 구성 (*이 붙은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자기명확성 부족	1, 8*, 15, 21*	4
미래불안	2, 9, 16*, 22	4
정보부족	3*, 10, 23	3
경제적 문제	4, 11, 17, 24	4
타인과의 관계 갈등	5, 12*, 18	3
나이 문제	6, 13, 19*	3
흥미 부족	7, 14*, 20	3
총계		24

4.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40개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6.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장벽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인 진로장벽 척도를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진로 유형, 진로 분야, 전공, 전공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 의사결정 과정, 진로 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IV-1>과 같다. 응답자 총 140명 중 성별은 여자 113명, 남자 27명으로 음악전공의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공의 경우 성악 45명, 현악 28명, 관악 25명, 피아노 18명, 작곡/이론 15명, 기타(국악, 실용음악, 합창지휘, 오르간) 9명 순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을 선택한 시기는 고등학교 42.9%, 중학교 31.4%, 11세 이전 11.4%, 초등학교 고학년 9.3%, 20세 이후 5%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연도의 경우 2014-2015년 47.9%, 2012-2013년 30.7%, 2012년 이전과 2016-2017년은 10.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은 학사 51.4%, 석사 재학 중 40%, 석사 8.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113	80.7
	남자	27	19.3
전공	작곡/이론	15	10.7
	성악	45	32.1
	피아노	18	12.9
	현악	28	20.0
	관악	25	17.9
	기타	9	6.4
	전공선택 시기	11세 이전	16
	초등학교 고학년	13	9.3
	중학교	44	31.4
	고등학교	60	42.9
	19세 이후	7	5.0
입학연도	2012년 이전	15	10.7
	2012-2013년	43	30.7
	2014-2015년	67	47.9
	2016-2017년	15	10.7
최종학력	학사	72	51.4
	석사 재학 중	56	40.0
	석사	12	8.6
총계		140	100.0

2.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은 <표IV-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음악에 대한 흥미(4.55)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어릴 때 겪은 음악적 경험(3.90)이 두 번째, 음악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3.81)이 세 번째로 높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과 진로의 보장(1.73)과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1.99)는 가장 낮은 요인

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 요인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그에 반해 직업조건 요인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IV-2> 음악전공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분석

구분	선택요인	평균	표준편차
내적 요인	음악에 대한 흥미	4.55	.63
	음악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	3.81	.94
사회문화적 요인	음악가에 대한 꿈이나 롤모델	3.52	1.20
	음악적 경험	3.90	1.25
	부모님의 권유나 가정의 영향	2.84	1.52
	주변인(선생님, 선후배, 친구)의 권유	2.71	1.45
직업조건 요인	취업(진로)의 보장	1.73	.93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	1.99	1.13

3.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가.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대학교 재학 시 희망진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졸업할 당시의 희망진로를 비교한 것은 <표IV-3>과 같다.

<표Ⅳ-3>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대학교 입학 시와 졸업 시 희망진로

순 위	대학 입학할 당시 희망진로	빈도 (명)	비율 (%)	순 위	대학 졸업할 당시 희망진로	빈도 (명)	비율 (%)
1	전문연주자 또는 작곡가	53	37.9	1	음악교육자	37	26.4
2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	29	20.7	2	전문연주자 또는 작곡가	35	25.0
3	음악교육자	28	20.0	3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	33	23.6
4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음	17	12.1	4	음악 관련 분야 취업	16	11.4
5	음악 관련 분야 취업	11	7.9	5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13	9.3
6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1	0.7	6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음	5	3.6
7	기타	1	0.7	7	기타	1	0.7
	총계	140	100.0		총계	140	100.0

먼저 대학에 입학할 당시 희망하거나 우선으로 계획한 진로를 살펴보면, 전문연주자 또는 작곡가의 비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비율이 12.1%로 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대학을 졸업할 당시 희망하거나 우선으로 고려한 진로를 살펴보면, 입학 당시와 다르게 음악교육자(예: 교수, 교사, 강사, 개인레슨 등)의 비율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입학 당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전문연주자는 25%로 입학 당시보다 12.9% 감소했다.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음악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 유학)의 경우 순위 면에서는 입학 당시보다 떨어졌지만, 비율은 23.6%로 2.9% 상승하였다. 이어서 음악 관련 분야 취업(예: 예술공연기획, 음악치료,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 등)이 11.4%로 3.5% 상승하였고,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은 9.3%로 8.6%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6%로 입학 당시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나.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결정 현황

다음으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결정한 진로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결정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대학원 재학 중 / 해외 유학 중	56	40.0
파트타임 직장 근무	30	13.6
취업준비 중	21	15.0
풀타임 직장 근무	19	13.6
학업 준비 중	3	2.1
없음	3	2.1
총계	140	100.0

<표IV-4>를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해외 유학 중인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파트타임 직장 근무 21.4%, 취업준비 중 15%, 풀타임 직장 근무 13.6%, 학업 준비 중 7.9%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25%)보다 대학원 및 해외 유학으로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비율(47.9%)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분야를 연주 분야, 음악 관련 분야, 음악 외 다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다음 <표IV-5>와 같다.

<표Ⅳ-5>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결정 분야

구분		빈도 (명)	비율 (%)	합계	
				빈도(명)	비율(%)
연주 분야	풀타임 직장 근무	1	0.7	46	33.6
	파트타임 직장 근무	9	6.6		
	취업준비	4	2.9		
	대학원 재학	21	15.3		
	학업 준비	11	8.0		
음악 관련 분야	풀타임 직장 근무	10	7.3	68	49.6
	파트타임 직장 근무	16	11.7		
	취업준비	8	5.8		
	대학원 재학	34	24.8		
	학업 준비	0	0.0		
음악 외 다른 분야	풀타임 직장 근무	8	5.8	23	16.8
	파트타임 직장 근무	5	3.6		
	취업준비	9	6.6		
	대학원 재학	1	0.7		
	학업 준비	0	0.0		

<표Ⅳ-5>와 같이 전체 졸업생 중 음악 관련 분야를 선택한 비율은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표Ⅳ-3>에서 이들이 졸업할 당시 음악교육을 비롯한 음악과 관련된 분야 취업을 희망한 비율(37.8%)보다 11.8% 상승한 것이다. 연주 분야를 선택한 비율은 33.6%로 졸업 당시 희망 비율(48.6%)보다 15%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음악 외 다른 분야를 선택한 비율은 1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대학 졸업 당시 희망 비율(9.3%)보다 7.5%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의 경우 음악 외 다른 분야를 목표로 하는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연주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2.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 학업을 준비하는 경우 모두 연주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위 결과를 종합하여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주 분야로 취업하거나 동일 전공으로 상위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당시 58.6%, 졸업 당시 48.6%로 높은 반면 현재 선택한 비율은 22.7%로⁷²⁾ 점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주 분야로 취업을 희망한 비율만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 당시 희망비율 37.9%, 졸업 당시 25%였으나 졸업 후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7.3%로 나타났으며, 이중 풀타임으로 연주단체에서 일하는 비율은 0.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연주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도 2.9%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연주 외의 음악 관련 분야로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의 상위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당시 27.9%, 졸업 당시 37.9%이며, 현재 선택한 비율은 43.8%로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관련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로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의 상위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한 비율은 입학 당시 0.7%, 졸업 당시 9.3%이며, 현재 선택한 비율은 10.2%로 상승하였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6.6%로 연주 관련이나 음악 관련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장벽

가.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장벽

72) <표IV-5>의 연주 분야 총비율에서 취업준비와 학업 준비의 비율을 제외한 수치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표IV-6>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악대학 졸업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3.38)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적 문제(3.29)와 정보 부족(3.15)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 부족(2.18)이나 타인과의 관계 갈등(2.13)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미래불안이며, 가장 낮게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타인과의 관계 갈등이었다.

<표IV-6>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장벽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미래불안	3.38	.93
경제적 문제	3.29	.97
정보 부족	3.15	.97
나이 문제	2.85	.98
자기명확성 부족	2.72	.86
흥미 부족	2.18	.64
타인과의 관계 갈등	2.13	.70

나.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는 <표IV-7>과 같다. 현재 하는 일을 묻는 문항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3부의 설문지는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결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진로 유형은 풀타임 직장 근무 19명, 파트타임 직장 근무 30명, 취업준비 중 21명, 대학원 재학 중 56명, 학업 준비 중 11명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졸업생들의 진로 유형별 진로장벽 전체 수준은 취업준비 중(3.06), 학업 준비 중(2.95), 파트타임 직장 근무(2.97), 풀타임 직장 근무(2.84), 대학원 재학 중(2.71)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IV-7>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장벽 전체	풀타임 직장 근무	2.97	.51	1.598	.178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3.06	.66			
	취업준비 중	2.71	.64			
	대학원 재학 중	2.95	.58			
	학업 준비 중					
자기명확성 부족	풀타임 직장 근무	2.79	.94	1.898	.114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2.73	.82			
	취업준비 중	3.08	.81			
	대학원 재학 중	2.51	.86			
	학업 준비 중	2.89	.85			
미래불안	풀타임 직장 근무	3.32	1.08	.832	.507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3.52	.76			
	취업준비 중	3.54	.93			
	대학원 재학 중	3.25	.97			
	학업 준비 중	3.64	.84			
정보 부족	풀타임 직장 근무	3.23	.99	1.422	.230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3.43	.94			
	취업준비 중	3.19	.88			
	대학원 재학 중	2.93	1.04			
	학업 준비 중	3.30	1.02			
경제적 문제	풀타임 직장 근무	3.22	1.05	1.271	.285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3.45	.89			
	취업준비 중	3.49	.92			
	대학원 재학 중	3.12	.86			
	학업 준비 중	3.64	.73			
타인과의 관계 갈등	풀타임 직장 근무	2.05	.60	1.482	.211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2.16	.79			
	취업준비 중	2.46	.71			
	대학원 재학 중	2.04	.73			
	학업 준비 중	2.09	1.10			
나이 문제	풀타임 직장 근무	2.95	.94	1.010	.405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2.97	.96			
	취업준비 중	3.06	.98			
	대학원 재학 중	2.70	.85			
	학업 준비 중	2.55	.71			
흥미 부족	풀타임 직장 근무	2.05	.65	.379	.823	n/a
	파트타임 직장 근무	2.26	.59			
	취업준비 중	2.25	.66			
	대학원 재학 중	2.19	.48			
	학업 준비 중	2.12				

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분야에 따른 진로장벽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의 분야에 따른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는 <표IV-8>과 같다. 진로 분야는 연주 분야 46명, 음악 관련 분야 68명, 음악 외 분야 23명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생들의 진로 분야별 진로장벽 전체 수준은 음악 외 분야(3.12), 음악 관련 분야(2.81), 연주 분야(2.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명확성 부족과 미래불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표IV-8>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 분야에 따른 진로장벽⁷³⁾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장벽 전체	연주 분야	2.81	0.66	2.413	.093	-
	음악 관련 분야	3.12	0.59			
	음악 외 분야	3.12	.81			
자기명확성 부족	연주 분야	2.49	.90	3.872*	.023	c>a
	음악 관련 분야	2.74	.77			
	음악 외 분야	3.09	.90			
미래불안	연주 분야	3.43	.96	3.944*	.022	c>b
	음악 관련 분야	3.22	.72			
	음악 외 분야	3.83	.99			
정보 부족	연주 분야	3.09	1.01	.568	.568	-
	음악 관련 분야	3.13	.88			
	음악 외 분야	3.35	.95			
경제적 문제	연주 분야	3.32	.96	.320	.727	-
	음악 관련 분야	3.25	1.03			
	음악 외 분야	3.43	.61			
타인과의 관계 갈등	연주 분야	2.02	.74	1.268	.285	-
	음악 관련 분야	2.15	.78			
	음악 외 분야	2.30	.87			
나이 문제	연주 분야	2.75	.98	2.511	.085	-
	음악 관련 분야	2.75	1.10			
	음악 외 분야	3.25	.68			
흥미 부족	연주 분야	2.17	.59	.080	.923	-
	음악 관련 분야	2.19	.71			
	음악 외 분야	2.23				

* $p < .05$

진로 분야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면, 자기명확성 부족의 경우 음악 외 분야(3.09)가 높고, 연주 분야(2.49)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미래불안의 경우 음악 외 분야(3.83)가 높고, 음악 관련 분야(3.22)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라.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는 <표IV-9>와 같다. 전공은 작곡/이론 15명, 성악 45명, 피아노 18명, 현악 28명, 관악 25명, 기타 9명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생들의 전공별 진로장벽 전체 수준은 현악(2.96), 관악(2.89), 성악(2.87), 피아노(2.82), 작곡/이론(2.78), 기타(2.54)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IV-9>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장벽 전체	작곡/이론	2.78	.59	.661	.654	n/a
	성악	2.87	.61			
	피아노	2.82	.79			
	현악	2.96	.70			
	관악	2.89	.48			
	기타	2.54	.62			
자기명확성 부족	작곡/이론	2.63	.47	1.815	.114	n/a
	성악	2.72	.89			
	피아노	2.98	1.10			
	현악	2.59	.72			
	관악	2.06	.86			
	기타	3.20	.89			
미래불안	작곡/이론	3.54	.93	.901	.483	n/a
	성악	3.31	1.13			
	피아노	3.36	1.03			
	현악	3.45	.67			
	관악	2.92	.83			
	기타					

73) <표IV-8>에서 a는 연주 분야, b는 음악 관련 분야, c는 음악 외 분야를 의미한다.

정보 부족	작곡/이론	3.04	1.08	.096	.993	n/a
	성악	3.14	.98			
	피아노	3.13	1.02			
	현악	3.20	1.00			
	관악	3.21	.83			
	기타	3.04	1.18			
경제적 문제	작곡/이론	3.20	1.07	.194	.965	n/a
	성악	3.24	1.03			
	피아노	3.25	1.02			
	현악	3.40	.98			
	관악	3.38	.81			
	기타	3.17	.97			
타인과의 관계 갈등	작곡/이론	2.00	.62	.635	.673	n/a
	성악	2.05	.75			
	피아노	2.06	.77			
	현악	2.27	.70			
	관악	2.25	.55			
	기타	2.19	.96			
나이 문제	작곡/이론	2.96	1.06	.911	.476	n/a
	성악	2.90	1.03			
	피아노	2.81	1.00			
	현악	2.92	.99			
	관악	2.88	.77			
	기타	2.19	1.09			
흥미 부족	작곡/이론	2.22	.53	.458	.807	n/a
	성악	2.08	.63			
	피아노	2.20	.81			
	현악	2.29	.60			
	관악	2.23	.54			
	기타	2.07	.85			

마.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장벽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시기별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는 <표IV-10>과 같다. 전공선택 시기는 11세 이전 16명, 초등학교 고학년 13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0명, 19세 이후 7명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시기별 진로장벽 전체 수준은 초등학교 고학년(3.15), 중학교(2.94), 19세 이후(2.88), 고등학교(2.78), 11세 이전(2.66)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IV-10>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장벽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장벽 전체	11세 이전	3.15	.73	1.562	.188	n/a
	초등학교 고학년	2.94	.59			
	중학교	2.78	.58			
	고등학교	2.88	.33			
	19세 이후	2.47	0.89			
자기명확성 부족	11세 이전	3.15	1.07	2.337	.059	n/a
	초등학교 고학년	2.91	.76			
	중학교	2.55	.85			
	고등학교	2.64	.78			
	19세 이후	2.92	1.06			
미래불안	11세 이전	3.56	.97	1.866	.120	n/a
	초등학교 고학년	3.60	.93			
	중학교	3.31	.89			
	고등학교	3.32	.35			
	19세 이후	2.92	1.13			
정보 부족	11세 이전	3.36	1.06	.506	.731	n/a
	초등학교 고학년	3.08	.97			
	중학교	3.22	.94			
	고등학교	3.14	.79			
	19세 이후	2.94	1.20			
경제적 문제	11세 이전	3.60	.88	1.011	.404	n/a
	초등학교 고학년	3.38	.86			
	중학교	3.24	1.03			
	고등학교	3.39	.56			
	19세 이후	2.17	.69			
타인과의 관계 갈등	11세 이전	2.44	.85	.990	.415	n/a
	초등학교 고학년	2.09	.71			
	중학교	2.07	.70			
	고등학교	2.38	.30			
	19세 이후	2.94	1.15			
나이 문제	11세 이전	3.18	1.05	1.008	.406	n/a
	초등학교 고학년	2.91	.95			
	중학교	2.68	.97			
	고등학교	3.10	.63			
	19세 이후	2.15	.57			
흥미 부족	11세 이전	2.46	.66	1.255	.291	n/a
	초등학교 고학년	2.25	.69			
	중학교	2.10	.57			
	고등학교	1.95	.89			
	19세 이후					

V. 연구분석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내적 요인인 음악에 대한 흥미(4.55)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조건 요인 취업과 진로의 보장(1.73)과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1.99)는 가장 낮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음악전공생들이 대학 입학 시에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12.1%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음악전공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진로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공을 지속하여 연주 분야로 취업하거나 상위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대학에 입학 시 58.6%, 졸업 시 48.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졸업 후 실제로 선택한 비율은 22.7%로 점점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현재 연주 분야로 취업한 비율은 7.3%며, 이중 풀타임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단 0.7%였다. 반면 음악전공생들이 대학 재학 시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연주 외의 음악 관련 분야와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는 졸업 후에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시 27.9%, 졸업 시 37.9%, 현재 선택한 비율 43.8%로 크게 증가했으며,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또한 입학 시 0.7%, 졸업 시 9.3%, 현재 선택한 비율 10.1%로 나타났다. 즉, 음악전공생들은 진로의사결정 초기에는 연주 분야를 많이 희망하지만, 음악 관련 분야나 음악 외 분야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이 초기에 계획한 진로와 다소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음악전공생들의 이러한 의사결정 변화는 이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내적 요

인이 크게 작용한 것과 달리,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취업의 용이성과 일자리 수요, 수입의 안정 등의 직업조건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주 분야를 지속하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이 좁으며, 특히 직장 건강보험 가입 취업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소수의 졸업생만이 이에 종사하게 되고 이 외에는 프리랜서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출이 어려운 연주 분야보다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어 진입장벽이 낮고 음악전공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음악계에서의 취업의 한계를 느끼고 음악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결정한 진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25%)보다 대학원 및 해외 유학으로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비율(47.8%)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자통계조사에서 음악대학 졸업자의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높다고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많은 음악전공생들이 대학 졸업 후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현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음악전공생들이 취업장벽을 크게 느끼고 진로결정을 유예하는 것이다. 음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해 연구한 추상희와 최진호⁷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대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지며 졸업을 해서도 낮은 진로결정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탐색과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통해 진로결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음악계의 제한된 직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을 조사한 주희선⁷⁵⁾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 고학력이 필요하다고

74) 추상희·최진호(2020). “관현악 전공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분석”. 음악교육공학, 42. p. 62.

75)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p. 117.

인식하는 비율이 타 전공 대학생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음악전공자들이 해외 유학길에 오르는 것에 대해 조부환⁷⁶⁾은 더 좋은 교육과 공연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와 수입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전공의 특성상 학사 학위만으로는 전문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도 있지만, 학위를 중시하는 음악계의 관습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⁷⁾

넷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미래에 대한 불안(3.3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3.29)와 정보 부족(3.15)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⁷⁸⁾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음악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나이 문제 요인을 다루지 않거나 굉장히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나이 문제(2.85)가 졸업생들에게 진로장벽으로 비교적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안과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은 진로장벽 요인으로 나타난 것 또한 음악전공자들이 진로의사결정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직업조건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졸업을 앞두고 뒤늦게 진로를 설계하며 고려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낮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 비율 및 유지 취업률과, 높은 프리랜서 종사 비율 등의 음악계 고용시장이 가진 여러 문제

76) 조부환(2011). “한국 음악전공자의 유학 후 실태와 새로운 유학모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13. p. 161.

77) 정환호(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

78) 장명진(2019).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환호(2016). 위의 책.

이슬(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를 직면하면서 이와 같은 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주 외의 다른 진로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안정이 지연되므로 이와 같은 장벽을 인식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결정한 진로의 분야에 따른 진로장벽 수준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미래불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악 외 다른 분야를 선택한 졸업생들이 연주나 음악 분야를 선택한 졸업생보다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장벽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6.6%로 연주 분야(2.9%)와 음악 관련 분야(5.8%)보다 높게 나타나, 진로안정이 비교적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전공생들이 이른 나이에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전공에 따른 실기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직무역량이 획일화되어, 졸업 후에 다른 분야를 선택하려고 할 때 직무 분야의 불일치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요인과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기까지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인식한 진로장벽을 분석하여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선택과 음악대학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를 수립하고 검증한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생들의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에 대한 흥미(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과 진로의 보장(1.73)이나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1.99)는 전공선택에 있어 가장 낮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전공생들은 전공선택에 있어 내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직업조건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 입학 시와 졸업 시 희망진로와 현재 결정한 진로를 조사한 결과, 음악전공생들은 대학 재학 시에는 대부분 전공과 관련하여 연주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였으나 졸업 후에는 연주 외의 음악 관련 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비율은 입학 시 58.6%, 졸업 시 48.6%였으며, 졸업 후 실제로 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22.7%로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음악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한 비율은 대학 입학 시 27.9%, 졸업 시 37.9%이며, 현재 선택한 비율은 43.8%로 비율이 상승하였다.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또한 입학 시 0.7%, 졸업 시 9.3%, 현재 선택한 비율은 10.1%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의사결정의 변화는 음악전공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나 일자리 등의 직업조건 요인을 졸업을 앞두고 고려하게 되면서, 직업시장이 좁고 불안정한 연주 분야 대신 비교적 진입이 쉬

운 음악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대학은 학생들의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 관련 산업에 대한 시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진로지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크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미래에 대한 불안(3.38)이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3.29)와 정보 부족(3.15)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생들이 초기에 진로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고 직업조건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뒤늦게 고려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계 고용시장의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며,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 늦어지는 진로안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장벽을 느낄 것이다. 아울러 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은 대학에서 음대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해 정보를 활발히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악대학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원만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방향을 두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음악대학 졸업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집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확대되고 균등한 표본을 선정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규명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연구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수정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으므로 음악전공생들의 전체적인 진로발달 과정을 연결하

여 분석하기에 다소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전공생의 진로발달 과정을 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음악전공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확대되어,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의 틀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공윤정(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김계원·양은주·최정수(2016). “예체능계 대학 인력 공급 현황 및 인식분석”. **예술교육연구**, 14(1). 1-16.
- 김봉환(201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봉환·김은희·강혜영·공윤정·김영빈·김희수·선혜연·손은령·송재홍·유현실·이제경·임은미·황매향(2018). **진로상담(2판)**. 서울:학지사.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수혜(2018).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취업 여부와 시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03-325.
- 김은영(2000).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준·황은희(2016). **대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 서울: 가담플러스.
- 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 김충기·황인호·장성화·김순자·윤향숙(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학지사.
-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 박지현·조영일·신희망·장선화·안소라(2015).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음악학과 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성태제·시기자(2014). **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 손보영(2014). 성인진입기의 다중역할계획태도 중단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 송원영·김지영(2013).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 신선임·김계현(2012). “진로결정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예언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담학연구**, 13(4). 1663-1677.
- 오원경(2018).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자들의 취업 및 대학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이보현(2014).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2007). **진로상담**. 파주: 양서원.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명진(2019).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이슬·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정환호(2016).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과 진로선택 및 진로장벽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호·최진호(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161-183.
- 조부환(2011). “한국 음악전공자의 유학 후 실태와 새로운 유학모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13. 157-170.

-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107-120.
- 추상희·최진호(2020). “관현악 전공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분석”. **음악교육공학**, 42. 45-66.
- 홍지연(2018). “음악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7(2). 265-290.
- 황매향·김연진·이승구·전방연(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2판)**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서울: 학지사.
- Sharf, R. S.(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 김진숙·김정미·서영숙 역. 서울: 박학사.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 (2020. 2월 접속)
-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www.korean.go.kr. (2020. 1월 접속)
- 김현경(2019). OECD 청년실업률 떨어질 때 韓2.4%P 올랐다.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090259&t=NN> (2020. 1월 접속)
-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www.mcst.go.kr. (2020년 3월 접속)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치중등 교육통계편.

<https://kess.kedi.re.kr/>. (2019. 10월 접속)

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RD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862&cid=51072&categoryId=51072>. (2020. 4월 접속)

ABSTRACT

Analysis of Major Choice Factors,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Career Barriers of Music University Graduates

Kim, Ju eu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career problems for music majors by providing basic data in order to help students make career decisions and music colleges organize career guidance. This objective was achieved by investigating major choice factors an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music college graduates and analyzing career barriers that occurred during their career decisions.

To that end, a mobile survey using the Google Form was conducted on 143 graduates of the College of Music. 140 of data were finally analyzed, except for 3 unusable responses. There were a total of 45 questions in the survey,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choice factors,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s, and career barri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interest in music(4.55), which is an internal factor,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in major choice factors. On the other hand, expectations for high income(1.99) and guarantees of employment and career(1.73) had the lowest impact on choosing a major.

Secondly, a surve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raduates of the College of Music found that many music majors hope to enter the field of performance when they are in college, but after graduation, they choose music-related fields other than performance.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wanted to enter the field of performance was 58.6% at the time of college admission and 48.6% at the time of graduation, but the ratio of their choice now decreased to 22.7%. Among them, only 7.3%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field of performing.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hose music-related fields increased by 43.8%, a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wanted to enter these fields was 27.9% at the time of college admission and 37.9% at the time of graduation. Also, only 0.7% of graduates expected to enter the fields that are separate from music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9.3% at the time of graduation, but the current ratio of choice rose to 10.1%.

Thirdly, the biggest career barrier for music college graduates was future anxiety(3.38), followed by economic problems (3.29) and lack of information (3.15).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is believed that the change in career decision of music major students and the high awareness of future anxiety and economic problems wer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job condition factors in the career decision, whereas the internal factors played a major

role in choosing their major. By considering realistic factors about jobs while entering society which they did not consider in the early stages of a career decision, they seem to choose music-related fields instead of the playing field in the job market which is narrow and unstable.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hop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in music colleges will help students solve their career barriers by providing students with various directions and information about careers.

부 록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진로의사결정 과정, 진로장벽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선택 요인과 진로결정,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음악전공자들의 진로결정과 음악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본인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주은
wndms4512@naver.com

I. 개인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작곡/이론
② 성악
③ 피아노
④ 현악
⑤ 관악
⑥ 기타: ()

3. 귀하가 전공을 선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1세 이전
- ②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 ③ 중학교(14-16세)
- ④ 고등학교(17-19세)
- ⑤ 19세 이후

4. 귀하의 대학 입학년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학사
- ② 석사 재학 중
- ③ 석사
- ④ 박사 재학 중
- ⑤ 박사

II.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음악에 흥미를 느껴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음악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음악가(연주자)가 되고 싶은 꿈이나 나의 롤모델로 인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릴 적 겪은 음악적 경험(예: 학교나 교회 등에서의 음악 활동, 합창단·오케스트라 경험 등)으로 인해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부모님의 권유나 가정의 영향으로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변인(선생님, 친구, 선후배 등)의 권유로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음악을 전공하면 취업이나 진로가 보장되어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높은 수입을 기대하여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Ⅲ. 희망 진로

1. 귀하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장 희망하거나 우선으로 계획한 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음악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 유학)
- ② 전문 연주자(오케스트라·합창단 등 연주단체 취업 또는 솔리스트 등의 프리랜서 연주자) 또는 작곡가
- ③ 음악 교육자(예: 교수, 교사, 강사, 개인레슨 등)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
- ④ 음악 관련 분야 취업(예: 예술공연기획, 음악치료,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직 등) 또는 관련 대학원 진학
- ⑤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 ⑥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 ⑦ 기타: ()

2. 귀하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고려한 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동일 전공으로의 학업 지속(음악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 유학)
- ② 전문 연주자(오케스트라·합창단 등 연주단체 취업 또는 솔리스트 등의 프리랜서 연주자) 또는 작곡가
- ③ 음악 교육자(예: 교수, 교사, 강사, 개인레슨 등)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
- ④ 음악 관련 분야 취업(예: 예술공연기획, 음악치료,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직 등) 또는 관련 대학원 진학
- ⑤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취업
- ⑥ 진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 ⑦ 기타: ()

IV. 졸업 후 현황(진로 결정)

1. 귀하가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풀타임 직장 근무(매일 일정 시간 근무)
- ② 파트타임 근무(근무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근무)
- ③ 취업 준비 중
- ④ 대학원 재학 중 혹은 해외 유학 중
- ⑤ 학업 준비 중(대학원 진학 혹은 해외 유학)
- ⑥ 없음

2. 1번 문항의 ①번 혹은 ②번을 선택한 경우, 현재 하는 일의 분야가 무엇입니까?

- ① 전공(음악) 관련 분야 풀타임 근무
- ②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풀타임 근무
- ③ 전공(음악) 관련 분야 파트타임 근무
- ④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 파트타임 근무

2-1. 음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① 연주단체(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소속
- ② 프리랜서 연주자 및 작곡가
- ③ 음악 교육자(교사, 강사, 개인레슨 등)
- ④ 음악 관련 분야(예술공연기획, 음악치료,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직 등)

2-2. 음악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3. 1번 문항의 ③번을 선택한 경우, 어떤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연주(전공 실기) 관련 분야(연주단체, 프리랜서 등 전문연주자 혹은 작곡가)
- ② 음악 관련 분야(비연주 중심, 예: 음악교육, 음악치료, 예술공연기획, 공연연출, 음향엔지니어, 음악행정 등)
- ③ 음악 외 다른 분야

4. 1번 문항의 ④번 혹은 ⑤번을 선택한 경우, 어떤 분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연주 관련 분야
- ② 음악 관련 분야 (예: 음악교육, 음악치료, 음악경영 등)
- ③ 음악 외 다른 분야

V. 진로장벽

다음은 귀하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의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과 관련된 분야는 일자리가 제한적이어서 선택에 고민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한 진로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희망하는 진로나 목표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희망하는 진로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부모님, 가족, 선생님, 친구 등)의 반대나 간섭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전공이나 전공과 관련된 일에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전공과 관련된 진로는 안정적이지 못하여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약 나 혹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진로선택이 달라졌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을 할 때 동료 등 대부분의 사람과 잘 지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이 때문에 빨리 직업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전공 이외에도 크게 관심이 가거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전공을 직업으로 삼기엔(예: 연주자 등) 능력(혹은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진로선택에 있어 경제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의 의견이나 집안의 기대가 나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19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선택한 진로가 그다지 재미있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 말고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4	전공(음악)과 관련된 직업은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택에 고민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